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언론의 무용공연 보도 특성 분석

이윤경* 세종대학교 · 김태연** 한양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용공연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의 무용공연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무용공연'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넷마이너(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1990-2000)에는 '발레공연', '현대무용 공연', '초청공연',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 '한국전통춤 공연' 토픽이, 2기(2001-2011)에는 '현대무용 공연', '서울세계무용축제', '한국창작춤 공연', '한국전통춤 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발레무용수 초청공연' 토픽이, 3기(2012-2022)에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서울세계무용축제', '시립예술단체 공연 및 교육',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 '한국전통춤 공연', '보훈행사', '궁중무용 공연'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공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무용공연의 역사적 변천 과정 및 도출된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무용공연의 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무용공연, 빅데이터, 토픽 모델링, 뉴스, 공연 보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술은 삶의 주요한 가치이며 정체성과 행복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이주희, 2018). 그중에서도 무용은 심미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담아낼 뿐 아니라 시대에 따른 다양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시민들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무용가들에 의해 행해지는 무용공연 또한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성장 속도,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 왔다. 이렇듯 무용공연은 예술의 복합체로서 당대 사회와 문화를 대변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한혜리, 1999).

과거의 무용공연은 무용 전공자나 애호가들에 의해 공연 현장에서 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무용공연은 타 예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객층의 비중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이주희, 2018; 조남규, 김혜림, 2022).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온라인 공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이전과 다른 무용공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임지형, 2020). 무용수와 안무가들은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점차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창의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단순히 대면으로만 이루어졌던 공연을 넘어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공연 그리고 댄스필름, 숏폼(Short-form) 등 새로운 형태로 공연되고 있다. 이렇듯 과거에는 무용 애호가들에 의해 공연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무용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오늘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무용공연에 대한 일반 대중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박사, olivegreen01@hanmail.net

** 한양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강사, ballet9490@naver.com

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공연 티켓판매에서 순수무용은 123.1%의 증가로 연극, 음악, 뮤지컬 등을 제치고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장르로 선정되어 이를 증빙하고 있다(강진아, 2023.8.17).

이러한 시점에서 무용공연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무용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중들의 취향을 반영한 무용공연 트렌드 등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무용분야에서 공연 예술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그간의 역사적 변천과 함께 사회적, 과학적 발달로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과 상황에서 무용공연은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그 변화는 어떠한지, 또 미래의 발전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박재홍, 홍애령, 2018).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뉴스는 사회 주요 이슈를 보도하고 대중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과 수용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친다. 뉴스 보도는 의제 설정과 공론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담론을 생성하는 도구이자 소통 공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뉴스는 사회의 특정 의제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그러한 의제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을 발휘한다(김태종, 박상옥, 2019). 뉴스에 의해 대중의 사고가 구조화되고 수용되어 대세로 굳히게 된다는 의미와 함께 뉴스가 대중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조하나, 2022).

무용공연과 관련된 뉴스 보도는 무용계 이슈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담론을 통해 무용공연의 의제를 설정하므로 무용계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무용공연 관련 이슈를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의 취향을 유도하고 무용가들은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무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공연에 관한 뉴스 보도는 무용에 관한 시기별 담론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무용공연에 관한 뉴스 보도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방대한 양의 뉴스 자료를 기존 분석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으로 도출된 결과로부터 능동적인 대응과 변화 예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토픽 모델링 방법은 문서에 담긴 대규모 텍스트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 및 추출 해내는 방법으로 단어의 패턴을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클러스터링하여 주제를 추론한다. 특히 정형화, 비정형 자료 모두에서 숨겨진 정보까지 찾기 위하여 통계적, 규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텍스트 내 주요 핵심 개념을 추출하므로 객관적, 과학적이고, 개념들 관계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이예슬, 2020; 이예슬, 한혜원, 연은정, 2021). 무용분야에서 뉴스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연구물은 국내 스트리트댄스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최종환, 2023),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무용 이슈 분석(이한별, 2023), 코로나 이후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활용(조남규, 김혜림,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전통무용 미디어 담론 분석(조하나, 2022), 빅데이터를 이용한 무용 트렌드 분석(최재일, 최영철, 202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내 현대무용 관련 연구 및 보도경향 비교 분석(김하연, 이해준, 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공연관람 인식에 관한 연구(이용건, 최형철, 2020)가 발견될 뿐 국내 언론 무용공연 보도 특성을 빅데이터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대규모 무용공연 관련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면 무용 변천의 역사성과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의 변천 속에서 국내 무용공연의 과거와 현재의 영역을 뉴스 보도자료를 활용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무용공연 관련 뉴스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시하고 보도자료에 나타난 무용계 경향과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뉴스에 보도된 무용공연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무용에 관한 객관적인 견해와 사회 전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자료로서

무용공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무용의 변천 과정 및 역사성의 파악까지 가능할 것이다(김하연, 이해준, 2020; 박은혜, 2018; 조하나, 2022). 이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무용공연 보도 속에 숨겨진 의미도출과 함께 향후 무용공연 발전 방향 및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무용공연 보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언론의 경향을 나타내는 뉴스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뉴스 데이터 또한 예외는 아니다(유지은, 김현수, 2023; 한승희,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매체의 약 7천만건의 뉴스 콘텐츠를 데이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뉴스 검색을 넘어서 주요 이슈, 키워드 관계망,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빅카인즈(BIG KINDS)의 뉴스 기사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공정원, 이용희, 김지안, 2021; 정세원,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BIG KINDS)에 나타난 무용공연 관련 뉴스 보도를 활용하여 이에 관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용공연 관련 뉴스 보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색어는 '무용공연'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빅카인즈(BIG KINDS) 서비스가 개시된 1990년부터 연구 착수 연도 이전인 2022년까지로 설정하여 33년간 보도된 뉴스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 연구의 연도별 범주 구간을 주로 10년으로 한다는 선행연구(김태연, 이윤경, 2023; 김하연, 서대호, 2020; 김하연, 이해준, 2020)들을 참고로 하였으나, 본 연구 착수 시점 직전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각 단위를 11년으로 균등하게 구분하였다. 지역신문을 포함한 뉴스도 각 지역에 나타난 무용공연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판단되어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제공하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총 54개의 매체에 보도된 자료 1,335건을 수집하였다. 검색된 뉴스 보도 자료는 11년 단위로 1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354건, 2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526건, 3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455건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무용공연에 관한 언론 보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 분석대상의 특성

시기	연도	빈도(건)	비율(%)
1기	1990 ~ 2000	354	26.5
2기	2001 ~ 2011	526	39.4
3기	2012 ~ 2022	455	34.1
합계		1,335	100

2. 데이터 정제

수집한 자료는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NetMiner 4)를 통해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무용공연 관련 뉴스 자료 내 국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한글로 제한하였으며, 품사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사로 설정하였다(김경식, 2021). 추출된 한글 명사 데

이터는 ‘무용’, ‘춤’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단어를 대표어로 통일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유의어’를 정의하였으며, 여러 단어가 합성되어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무용단’, ‘신무용’과 같은 단어를 정의하는 ‘지정어’ 목록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이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제거하는 ‘제외어’ 정의 과정을 거쳤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언론의 시기별 무용공연 보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단어를 활용하여 무수히 많은 문서 내에서 숨어 있는 주제를 추론하여 주요 토픽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한 각각의 정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적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토픽 분포에 따라 할당되는 단어가 결정되므로 토픽의 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되어진 연구자료(김경식, 2021; 김태연, 이윤경, 2023; 박민애, 2022; 전민수, 임효성, 2021) 등을 참고로 하여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결과의 해석 여부 판단에 따라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토픽 수에 따라 분류된 주요 주제는 전체 문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각 토픽에 연결된 키워드는 토픽에 할당될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순으로 상위 10개를 제시하였으며, 키워드의 원문을 참고하여 해당 주제의 내용을 파악한 후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토픽결과의 내용 해석과 분류된 토픽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선행연구(안주영, 안규빈, 송민, 2016)를 참고하여 토픽의 명명에 있어서는 연구자 이외에 무용학 박사 1인, 무용과 교수 1인이 참가하여 의견 제시와 불일치할 경우 보도 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최종 도출된 결과는 시각화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픽과 키워드 간의 링크(Link)는 키워드가 토픽에 할당될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값이 높을수록 굵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논의

1. 1기(1990-2000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국내 언론에 나타난 무용공연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DA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무용공연 보도의 주된 이슈는 ‘발레공연’이 21.4%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현대무용 공연’이 20.3%, ‘초청공연’이 19.7%,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이 19.6%, ‘한국전통춤 공연’이 19%로 도출되었다.

‘발레공연’ 토픽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는 ‘발레’, ‘발레단’, ‘전당’, ‘소극장’, ‘중견’, ‘창단’, ‘기념’, ‘세종문화회관’, ‘사진’, ‘전시’로 나타났다. 키워드의 원문을 살펴본 결과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의 공연 소식 그리고 뉴욕시티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레닌그라드 남성발레단 등 해외 발레단의 내한 공연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특히 1990년대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문 발레단의 창단 소식 및 공연 활동을 보도한 자료가 다수 등장하였다.

‘현대무용 공연’ 토픽에는 ‘부산’, ‘교수’, ‘일본’, ‘전위’, ‘홍신자’, ‘세계’, ‘춤관’, ‘전당’, ‘인간’, ‘소극장’의 키워드가 할당되어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는 아시아 무용수들의 몸짓을 표현하는 현대무용 공연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전위무용가 홍신자의 공연 소식이 주로 보도되었다.

‘초청공연’ 토픽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로는 ‘단체’, ‘부산’, ‘민속’, ‘중국’, ‘창무’, ‘초청’, ‘한국무용’, ‘참가’, ‘교수’, ‘도시’가 등장하였다. 해당 토픽의 내용으로는 창무예술원 주최의 국제예술제 무용공연에서 국내의 현대무용단의 초청공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무용단이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공연을 펼친 내용이 보도되었다.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 토픽에는 ‘평론가’, ‘시립’, ‘단체’, ‘무용수’, ‘안무가’, ‘두레’, ‘세종문화회관’, ‘무용가’, ‘연극’, ‘발레단’의 키워드가 상위 10개의 확률분포를 보이며 나타났다.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은 무용 월간지 ‘댄스포럼’ 주최로 1998년부터 현시점까지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2015년부터는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연이다. 1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에 처음 개최된 만큼 이 시기의 무용 공연계 화두로서 평론가들이 선정하는 신진 무용가들의 공연에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통춤 공연’ 토픽은 ‘살풀이춤’, ‘국악’, ‘승무’, ‘시립’, ‘국립국악원’, ‘태평무’, ‘교수’, ‘국립’, ‘민속’, ‘기념’의 키워드가 상위 10개로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 각 시립무용단에서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검무, 처용무 등 한국전통춤 공연이 다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1999)은 90년대 무용계에서는 순수 춤창작 활동과 함께 대학에서의 춤 교육 활성화, 서울과 지역 간 경계를 무너트리고자 하는 시도의 세 가지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1기 토픽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90년대 무용계는 전반적으로 순수 창작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신진 무용가 발굴과 새로운 창작 무용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온 것을 볼 수 있다.

1기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무용의 다양한 장르 중 발레공연에 관한 뉴스 보도가 비교적 많이 실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일간지에 실린 무용 평론의 작품 중 발레 작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성경숙(200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여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즉 발레 작품이 다소 높은 비중으로 공연된 만큼 공연 관련 홍보 자료와 작품에 관한 평론 기사 등 발레 공연 뉴스 기사가 다수 보도되어 토픽으로 추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무용계에서 90년대는 대학 무용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단순한 교육의 본질을 넘어서 춤에 관하여 연구하고 창작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김태원, 1999). 따라서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무용단들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창작 활동으로 현대무용 공연이 다수 개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김명희(1998)는 대학 교수들 산하의 민간단체들이 1997년 기준 연간 700회에 육박하는 공연의 성과를 발표하여 70, 80년대에 비해 관객확보와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보고함으로써 대학중심, 교수, 창무 등의 키워드 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현대무용 공연’ 토픽에서 전위무용가 홍신자에 관한 보도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당시 전위무용가로 이름을 떨쳤던 홍신자의 공연 활동이 한국 현대무용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토픽 내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홍신자를 비롯한 한국 대표 무용수들이 세계를 무대로 전위예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에 담겨 뉴욕 공연이 위성 중계되고, 파리와 베를린의 공연으로 이어진다는 보도(이은경, 1994.9.6.)가 이 시기 무용계의 위상을 높이는 뉴스로 보도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홍신자는 1970년대부터 현대무용가로 활동하여 이전의 획일화된 춤을 거부하고 육체와 상상력의 해방 그리고 자유를 선포인 무용가로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김태원, 2022). 이로써 1기인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무용계에서 홍신자의 춤세계가 영향력 있는 스타일로 인식되면서 홍신자 공연 소식 및 춤에 관한 자료가 보도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밖에 이 시기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무용공연들을 지역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무용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초청공연’ 토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2. 1기(1990-2000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명	키워드	점유율(%)
발레공연	발레, 발레단, 전당, 소극장, 중견, 창단, 기념, 세종문화회관, 사진, 전시	21.4
현대무용 공연	부산, 교수, 일본, 전위, 홍신자, 세계, 춤판, 전당, 인간, 소극장	20.3
초청공연	단체, 부산, 민속, 중국, 창무, 초청, 한국무용, 참가, 교수, 도시	19.7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	평론가, 시립, 단체, 무용수, 안무가, 두레, 세종문화회관, 무용가, 연극, 발레단	19.6
한국전통춤 공연	살풀이춤, 국악, 승무, 시립, 국립국악원, 태평무, 교수, 국립, 민속, 기념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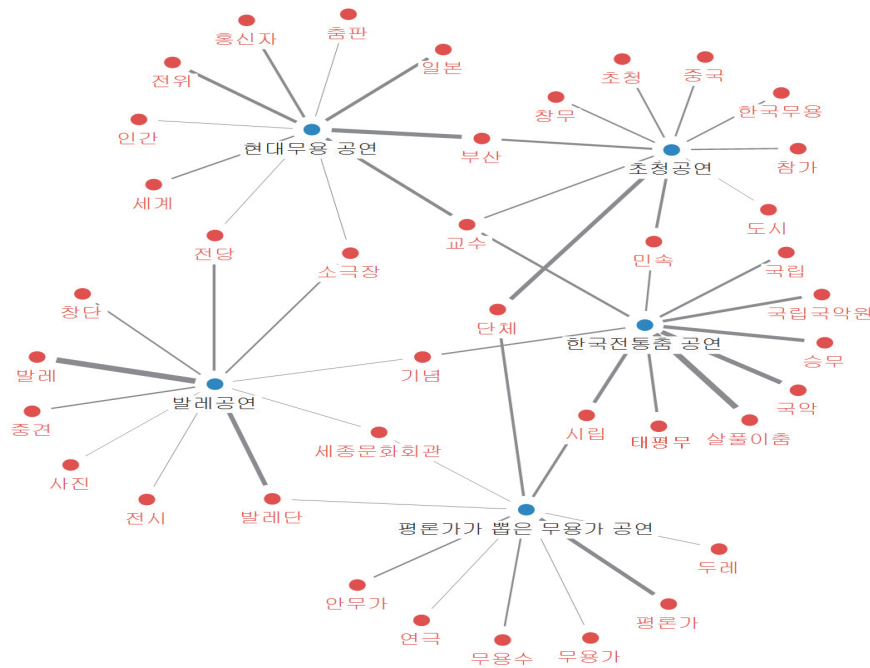


그림 1. 1기(1990-2000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시각화

2. 2기(2001-2011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2기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무용공연 보도의 주된 이슈는 1기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현대무용 공연’이 19.7%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이 16.9%, ‘한국창작춤 공연’이 16.8%, ‘한국전통춤 공연’이 16.7%, ‘무형문화재 공연’이 15.3%, ‘발레무용수 초청공연’이 14.6%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 공연’ 토픽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는 ‘서울’, ‘작품’, ‘예술제’, ‘현대’, ‘대구’, ‘현대무용’, ‘부산’, ‘문화’, ‘회관’, ‘연극’으로 나타났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살펴본 결과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무용 공연이 활성화되어 공연에 관한 홍보 기사가 다수 보도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에는 '서울', '무용수', '안무가', '발레', '아트', '센터', '현대', '현대무용', '일본', '프랑스'의 키워드가 할당되어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는 세계 각국의 우수 무용단을 한국에 초청하여 대중적인 무용부터 실험성이 짙은 현대무용 작품, 전통무용 등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창작춤 공연' 토픽에는 '창작', '서울', '작품', '현대', '극장', '음악', '문예', '회관', '교수', '울산'의 키워드가 할당되어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는 대학 무용단을 비롯 한국무용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창작무용 작품이 다수 안무되어 한국창작춤 공연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창작춤 공연' 토픽에 이어 한국전통춤 위주의 무대를 선보인 '한국전통춤 공연' 토픽도 등장하였다. 이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로는 '전통', '문화', '시립', '국악', '민속', '부산', '대구', '시민', '회관', '복지'가 등장하였다. 해당 토픽에는 각 지역의 국공립무용단이 한국전통춤 공연을 펼친 기사가 보도되었다.

'무형문화재 공연' 토픽에는 '전통', '살풀이춤', '문화', '창작', '회관', '국악', '서울', '춤사위', '문화재', '교수'의 키워드가 상위 10개의 확률분포를 보이며 나타났다. '무형문화재 공연' 토픽에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춤 이수자들의 명무전이 공연되어 이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기의 마지막 토픽으로 '발레무용수 초청 공연' 토픽이 도출되었다. 상위 10개 키워드로는 '발레단', '서울', '무용수', '세계', '스타', '축제', '현대', '해외', '초청', '발레'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개최된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공연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밖에도 세계적인 발레무용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내한 공연을 펼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01~2011년의 무용공연 관련 보도의 토픽모델링 결과 중 '현대무용 공연'과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을 통해 현대무용가들의 활발한 작품활동과 해외 무용단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세계무용축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제적인 규모로 개최된 축제로, 당시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무용 행사가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2기 무용계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현대무용 및 발레 등 외국 무용을 한국에 소개할 뿐 아니라 한국춤을 해외에 알리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서울세계무용축제, 2023. 11. 2). 따라서 2기의 무용 공연계는 국내외 우수 작품과 스타 무용수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공연에서 연극과 무용, 음악의 장르를 넘어 크로스오버로 세계 예술의 경향이 되어간다는 보도(김승현, 2008.9.20)로부터 융복합 공연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세계적 무용공연 팀을 초대하여 새로운 작품 경험을 하게 해 준 서울세계무용축제의 공로로 공연계에 기여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발레공연 또한 해외 무용단 초청과 스타 무용수들의 내한공연이 이루어진 것을 '발레무용수 초청 공연' 토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픽의 세부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공연이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내 발레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해외 우수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발레무용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갈라 형태로 공연하는 이 행사를 통해 한국 발레계의 발전과 그 위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2기에 나타난 '한국창작춤 공연', '한국전통춤 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토픽을 통해 한국무용 공연도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의 경우 한국 창작춤과 전통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세분화하여 도출된 만큼 무용가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공연이 다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무용은 현재의 트렌드를 융합하여 현대적 춤선으로 재탄생 시키는 한국창작춤 그리고 한국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국전통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들도 포함된다. 문화는 국가의 자산이며 민족적 유산으로서 한국은 세계적인 무형문화재 보호의 대표적 선진국으로 꼽힌다(곽교신, 2004.10.16; 서문현, 2017; 함선호, 차수정, 2022). 한

국춤은 오랜 세월을 거친 과거의 유산물로서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만큼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제도 등을 마련하여 그 전문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한국무용을 무대에 올릴 때 무용단 혹은 무용수만이 지니고 있는 분야와 특색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무용 내에서도 세부분야로 나누어 공연 정보를 알리고 뉴스기사로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특히 한국전통춤 공연과 궁중무용 공연 토픽은 한국무용만이 갖는 우수성과 경쟁력 그리고 가능성까지 보고(박혜연, 2021)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적 특징에 창의력과 기술력까지 더해진 글로벌 한류 문화콘텐츠로 거듭나 한국 특유의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서 무용공연도 발전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유동엽, 2021, 12, 31; 이한나, 2022.1.24.).

표 3. 2기(2001-2011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명	키워드	점유율(%)
현대무용 공연	서울, 작품, 예술제, 현대, 대구, 현대무용, 부산, 문화, 회관, 연극	19.7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 무용수, 안무가, 발레, 아트, 센터, 현대, 현대무용, 일본, 프랑스	16.9
한국창작춤 공연	창작, 서울, 작품, 현대, 극장, 음악, 문예, 회관, 교수, 울산	16.8
한국전통춤 공연	전통, 문화, 시립, 국악, 민속, 부산, 대구, 시민, 회관, 복지	16.7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 살풀이춤, 문화, 창작, 회관, 국악, 서울, 춤사위, 문화재, 교수	15.3
발레무용수 초청 공연	발레단, 서울, 무용수, 세계, 스타, 축제, 현대, 해외, 초청, 발레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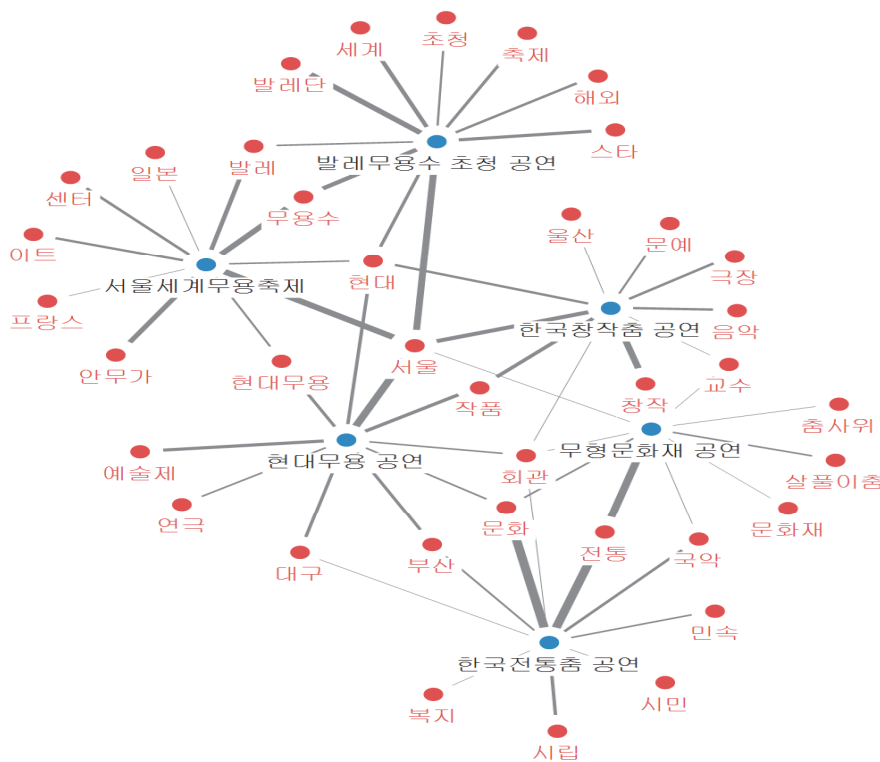


그림 2. 2기(2001-2011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시각화

3. 3기(2012-2022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3기인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무용공연 보도의 주된 이슈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이 21.4%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이 16.8%, ‘시립예술단체 공연 및 교육’과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 토픽이 14.8%, ‘한국전통춤 공연’이 12.8%, ‘보훈행사’ 토픽과 ‘궁중무용 공연’ 토픽이 각각 9.7%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창작산실’ 토픽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는 ‘창작’, ‘재단’, ‘사업’, ‘공연장’, ‘음악’, ‘보훈’, ‘학원’, ‘교류’, ‘센터’, ‘양산’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의 원문을 살펴본 결과, 무용 분야의 우수한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레퍼토리화 하여 창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에 관한 기사가 주로 보도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에는 ‘서울’, ‘극장’, ‘축제’, ‘아트’, ‘센터’, ‘대학’, ‘국제’, ‘세계’, ‘발레단’, ‘현대무용’의 키워드가 할당되어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는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된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행사에 관한 홍보자료가 보도되어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체 공연 및 교육’ 토픽에는 ‘대구’, ‘학생’, ‘장애’, ‘시립’, ‘학교’, ‘정기공연’, ‘교육’, ‘회관’, ‘작품’, ‘수원’의 키워드가 할당되어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는 대구를 비롯하여 울산, 대전,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에 관한 정보가 보도되었다. 이밖에 각 지역의 시립무용단이 근교 학교로 초청되어 ‘찾아가는 무용공연’ 형태로 학생들에게 무용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교육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 토픽에 할당된 상위 10개 키워드로는 ‘부산’, ‘영상’, ‘서울’, ‘교수’, ‘현대무용’, ‘최승희’, ‘일본’, ‘관객’, ‘주제’, ‘아름다움’이 등장하였다. 관련 기사에는 성기숙 연극재 관장이 일본에 소장된 가장 오래된 최승희의 무용 영상을 발굴함으로써 무용 연구자들에게 화두가 되었으며, 이밖에도 최승희의 춤을 재현한 한국 무용 공연이 펼쳐진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국전통춤 공연’ 토픽에는 ‘시립’, ‘국악’, ‘한국무용’, ‘대전’, ‘청주’, ‘예술단’, ‘살풀이춤’, ‘태평무’, ‘기념’, ‘회관’의 키워드가 상위 10개의 확률분포를 보이며 나타났다. 해당 토픽의 원문에는 국내 많은 무용단체에서 태평무와 살풀이춤, 승무 등 한국전통춤을 공연함으로써 이에 관한 공연 정보가 기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훈행사’ 토픽은 ‘울산’, ‘협회’, ‘행사’, ‘단체’, ‘무용인’, ‘보훈’, ‘학원’, ‘교류’, ‘센터’, ‘양산’의 키워드가 상위 10개로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의 보훈지청에서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대중들에게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무용공연이 펼쳐져 이와 관련된 행사 자료가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궁중무용 공연’ 토픽에는 ‘궁중’, ‘지역’, ‘서울’, ‘박물관’, ‘문화원’, ‘국악’, ‘개최’, ‘조선’, ‘진행’, ‘예술제’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궁중무용 공연’ 토픽에는 무용단들의 궁중무용과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 내용과 더불어 각종 공휴일과 연휴를 기념한 행사, 평창올림픽 폐막식 등 대규모 문화축전에서 궁중무용을 공연한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용공연과 관련된 뉴스 보도에서 2기에 나타났던 ‘서울세계무용축제’ 토픽이 3기에도 연이어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공공지원으로 대규모 무용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한 국제 교류와 전문 무용단체의 공연의 활성화, 주요 안무가들의 신작 발표가 촉진되었다는 연구보고(이지설, 2020)가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 나타난 ‘공연예술창작산실’ 토픽 또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제작부터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우수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무용 창작의 활성화와 경쟁력 고취 및 무용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박성혜, 2020).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규모 축제 형태의 무용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 무용인들과 관객들이 참여함으로써 무용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용 인식을 분석한 연구(현보람, 2021)에서 2000년 이후 다양한 기획공연 및 페스티벌 형태의 대규모 공연이 개최됨으로써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신진 안무가들의 작품을 다수 선보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각 지역의 시립예술단체들이 주최하는 기획공연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립무용단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식을 무용 공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애국정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데 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단체 및 보훈단체의 활보는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한다(이건미, 전미애, 2019).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무용단의 복지 성격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이 오늘날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기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한국무용 공연에 관한 토픽이 세분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한국무용이 한국 고유의 정통성을 지닌 문화인 만큼 한국무용 공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기사를 통해 한국전통무용에 관한 경향을 분석한 조하나(2022)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통무용에 대하여 전통무용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세분화된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로 할 때 한국무용 분야는 전통무용, 궁중무용,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성격으로 오랜 세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 2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3기에 눈에 띄는 토픽 중 하나로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이다. 2000년대 이후 무용학 연구지들에 의해 최승희의 춤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고 2009년 이후에는 무용 예술사적 담론을 넘어서 무용 외적 연구 성과까지 증가하면서 무용가 최승희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유리, 박순자, 2020). 특히 2014년에 춤자료관 연낙재가 현존하는 최승희의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 중 가장 오래된 영상을 발굴 및 소장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에 관한 뉴스 기사가 무용 공연계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무용공연 분야에서 최승희의 영상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최승희 무용가에 관한 연구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무용 공연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사료된다.

표 4. 3기(2012-2022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명	키워드	점유율(%)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 재단, 사업, 공연장, 음악, 보훈, 학원, 교류, 센터, 양산	21.4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 극장, 축제, 아트, 센터, 대학, 국제, 세계, 발레단, 현대무용	16.8
시립예술단체 공연 및 교육	대구, 학생, 장애, 시립, 학교, 정기공연, 교육, 회관, 작품, 수원	14.8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	부산, 영상, 서울, 교수, 현대무용, 최승희, 일본, 관객, 주제, 아름다움	14.8
한국전통춤 공연	시립, 국악, 한국무용, 대전, 청주, 예술단, 살풀이춤, 태평무, 기념, 회관	12.8
보훈행사	울산, 협회, 행사, 단체, 무용인, 보훈, 학원, 교류, 센터, 양산	9.7
궁중무용 공연	궁중, 지역, 서울, 박물관, 문화원, 국악, 개최, 조선, 진행, 예술제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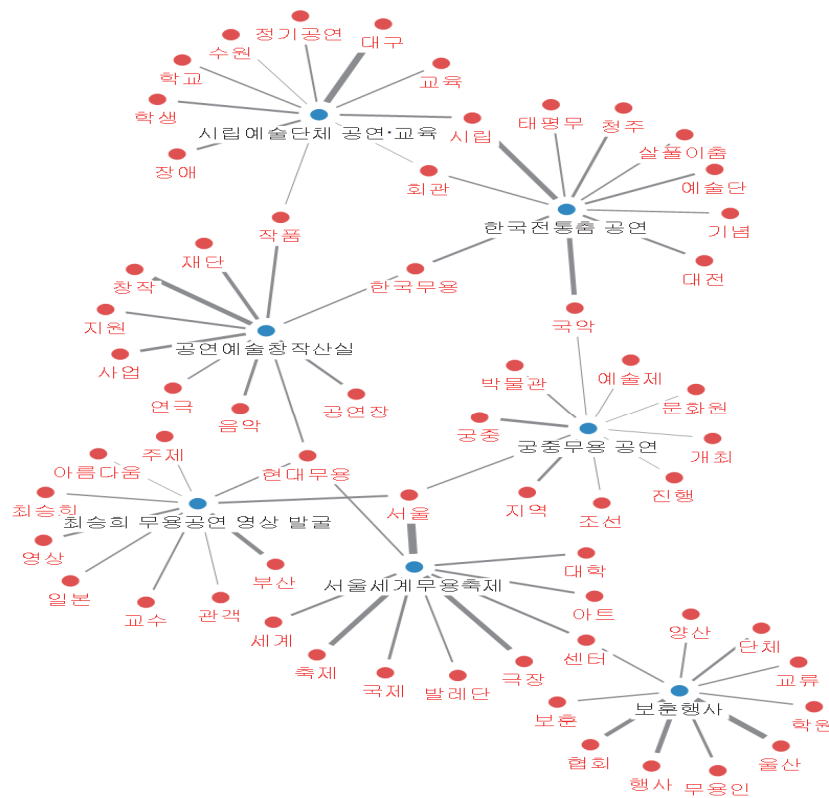


그림 3. 3기(2012-2022년) 국내 무용공연 보도의 토픽 모델링 시각화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공연 관련 국내 언론 보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무용공연의 시기별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의 무용공연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해 넷마이너(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텍스트마이닝 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1기(1990-2000)에는 '발레공연', '현대무용 공연', '초청공연', '평론가가 뽑은 무용가 공연', '한국전통춤 공연' 토픽이, 2기(2001-2011)에는 '현대무용 공연', '서울세계무용축제', '한국창작춤 공연', '한국전통춤 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발레무용수 초청공연' 토픽이, 3기(2012-2022)에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서울세계무용축제', '시립예술단체 공연 및 교육', '최승희 무용공연 영상 발굴', '한국전통춤 공연', '보훈행사', '공중무용 공연' 토픽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1기(1990-2000)에서 2기(2001-2011), 3기(2012-2022)로 세월이 흐를수록 토픽의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기에는 국내 무용수 및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순수 창작 작품이 공연되어졌으며, 대학에서의 무용공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등 한국 무용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기에는 국내 무용가들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해외 단체와의 교류가 이루어져 한국의 무용공연 시장이 국제적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기에는 국내 무용공연이 국제적 규모의 무용 축제 형태로 구성되어 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공공지원의 활성화로 신진 무용가들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용단체들이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일어났다. 이러한 변

회를 볼 때 향후 무용공연계가 더욱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대중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사료된다.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이념이나 정치, 경제보다 문화가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안치현, 2011.08.10.). 최근 한국 연예인의 글로벌 스타로의 등극이나 세계 정상에 오른 한류 문화의 기초에는 오천년 역사의 문화예술 정신이 뿌리가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문화 콘텐츠 중 무용공연에 대한 33년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으나, 이 안에 내재되어 있을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화의 반영이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회의 관습, 역사, 철학 등(오세중, 2021.11.3)에 대한 다각적, 입체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사에 나타난 무용공연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무용분야의 전문잡지의 자료는 포함되지 못하여 전문가적 시각으로의 무용공연 보도 특성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뉴스 기사는 대중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정보전달의 측면에서의 보도가 비중이 커 무용공연의 예술성이나 전문지식의 전달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이예슬, 2019; 조하나, 2022). 추후 연구에서는 대중적 시각의 뉴스와 전문 예술인, 학자, 비평가 등의 식견이 포함된 전문 자료와의 비교 분석 또한 진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난 33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용공연에 관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무용공연계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더욱더 세부적인 시기에 따른 주요 이슈와 최근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도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의 구체적인 무용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중들에게 선보일 공연 구성을 예측하고 무용공연의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이 남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추후 진행된다면 무용계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더욱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아(2023.8.17.). 상반기 공연 티켓판매 5024억원...전년 대비 42% 증가.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17_0002416409&cID=10702&pID=10700
- 공정원, 이용희, 김지안(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와 무용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8(1), 15-26.
- 곽교신(2004년 10월 16일). '사라져가는 우리의 숨결 무형문화재'.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5285
- 김경식(2021). 주제어 연결망 및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체육정책학의 지적 구조 규명. 한국체육학회지, 60(6), 71-88.
- 김명희(1998).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의 대중화 : 한국의 무용공연을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7, 1-19.
- 김승연(2008.9.20.). 9, 10월 공연예술축제-고전에서 전위·마당극까지...가을잔치 '풍년'. 문화일보.
- 김태연, 이윤경(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용 작품분석 연구 동향: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2(2), 59-71.
- 김태원(1999). [무용] 90년대 춤문화의 특성과 미래의 방향. 공연과 리뷰, 21, 19-27.
- 김태원(2022). [비평가자료편 (2)] 흥신자 춤에 대한 두 팸플릿 글. 공연과 리뷰, 28(1), 164-172.
- 김태중, 박상옥(2019).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교육 토픽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5(3), 29-63.
- 김하연, 서대호(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의 현대무용 연구 트렌드 변화 분석. 예술교육연구, 18(1), 171-192.
- 김하연, 이해준(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내 현대무용 관련 연구 및 뉴스보도 경향 비교분석 - 트렌드 변화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7(3), 49-65.
- 박민애(2022).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국내 학생 평가 연구 동향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26(2), 155-165.
- 박성혜(2020). 무용공연지원사업의 공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 관계 연구 -창작산실 무용분야 지원사업의 사례 중심으로. 무용예술학 연구, 79(3), 57-77.

- 박은혜(2018). 부르디외의 문화생산의 장이론으로 본 한국발레장의 역사성: 1950년대 이후 신문기사의 양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51, 99-123.
- 박재홍, 홍애령(2018). 무용의 산업화 동향 및 무용산업의 발전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5(3), 73-84.
- 박혜연(2021). 한국무용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진화를 위한 교육적 담론의 필요성 및 방향성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1(3), 65-74
- 서문현(2017).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무용부문> 운영 현황에 따른 발전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서울세계무용축제(2023. 11. 2). <http://www.sidance.org/2023/about/sidance.php>.
- 성경숙(2002). 90년대 이후 무용비평 경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주영, 안규빈, 송민(2016).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매체별 에볼라 주제 분석 - 바이오 분야 연구논문과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289-307.
- 오세중(2021년 11월 3일). BTS·오징어게임·기생충 등 해외로...정부, 'K-컬처' 확산에 '박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314002258687>
- 유동엽(2021.12.31.). 세계인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오징어게임...한류 콘텐츠 빛났다, KBS 뉴스
- 유지은, 김현수(2023). 빅인즈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국내 언론보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863-873.
- 이건미, 전미애(2019). 사회적 공헌으로써 무용복지의 가능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2), 101-111.
- 이예슬(2019). 미디어 담론에 나타난 무용 의미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3), 105-120.
- 이예슬(2020). 국제현대무용제를 통한 국내 현대무용 현상 연구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4), 147-160.
- 이예슬, 한혜원, 연은정(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생활무용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21(3), 41-50.
- 이용건, 주형철(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경연관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365-374.
- 이은경(1994.9.6.). 홍신자/김현자/이선옥/김영순/세계 톱무대 우리춤 선다. *국민일보*.
- 이주희(2018). 국가 문화예술지원 정책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8(1), 53-68.
- 이지설(2020). 무용공연의 디지털미디어연계 실태중계 사례분석 : 창작산실 무용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8(4), 1-8.
- 이한나(2022.1.24.). 일본도 한국에 호감으로...BTS가 국가이미지 올린 일등공신. *매일경제*.
- 이한별(2023).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무용 이슈 분석.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6(1), 139-150.
- 임지형(2020).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19의 무용공연, 무용관람, 무용환경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4), 181-197.
- 전민수, 임효성(2021). 태권도 뉴스기사의 연도별 주제어 분석: 토픽모델링 적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9(11), 575-583.
- 정세원(2020). 의미연결망분석과 정서분석 기법을 통한 우리나라 중앙지 EU 관련 기사 텍스트 연구. *EU학 연구*, 25(2), 97-116.
- 조남규, 김혜립(2022). 코로나 이후 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활용 : 텍스트 마이닝의 네트워크와 토픽 모델링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9(4), 21-36.
- 조하나(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전통무용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1(4), 147-159.
- 최유리, 박순자(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승희 연구의 의미 재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0(3), 11-24.
- 최재일, 최영철(2021). 빅데이터를 이용한 무용 트렌드 분석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비교.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727-738
- 최종환(2023). 국내 스트릿댄스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언론보도 및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1990년 - 2022년). *한국실용무용학회지*, 1(1), 3-20.
- 한승희(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 한혜리(1999).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문화 : 대한민국 무용제 이후 한국의 무용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0(2), 51-67.
- 함선호, 차수정(2022). 명작무 지정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소고(小考). *한국무용학회지*, 21(4), 55-67.
- 현보람(2021).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 인식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0(4), 99-111.

ABSTRACT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a's Dance Performance Reporting Using News Big Data

Yoonkyung Lee* Sejong University · TaeYeon Ki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edia reports on dance performances using news big data.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33 years of data were collected from 1990 to 2022 by BIG KINDS, and the main keyword was set as 'dance performance'.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NetMiner 4 program was used, and after text mining, it was analyzed using a Topic Modeling techniqu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1990–2000), topics such as "ballet performance," "modern dance performance," "invited performance," "criticism–selected dancer performance," and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were derived, while in the second period (2001–2011), topics such as "modern dance performance," "Seoul World Dance Festival," "Korean creative dance performanc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erformance," and "valle dancer invitation performance" were derived. In the third period (2012–2022), topics such as 'Performance Art Creation Room', 'Seoul World Dance Festival', 'City Art Organization Performance and Education', 'Discovering Video of Choi Seung-hee's Dance Performance',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Veteran Event', and 'Gungmu Dance Performance' were derived.

Key words : Dance Performances, Big Data, Topic Modeling, News, Performance Reports

논문투고일: 2024.02.28.

논문심사일: 2024.04.06

심사완료일: 2024.04.19

* Phd,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Dance, Hanyang University